

사사기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다.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가나안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한 것이다.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신 기록이다.

**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를 적나라하게 기록했다.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한 거울이다.** 거울은 나를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. 거기서 나를 보고, 나를 갱신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밖에 없는 그릇을 만들라는 것이다. 그 거울을 통해서 늘 나를 보고 또 늘 깨어있으라는 것이다(고전 10:11-12)

**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이다(엡2:19).** 아담의 타락이후 모든 인생이 죄와 저주에 빠지고(롬5:12),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흑암 권세에 놀려 살 수 밖에 없었다. 그런데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 저주에서, 그 흑암 권세에서, 우리를 해방시켰다(롬8:1-2).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다(골1:13-14). 그 때부터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릴 자가 된 것이다(엡1:3-5).

**이 언약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었다. 우상에 빠져 살던 가문, 가정 배경에서 불려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냈다.** 거기서 그리스도를 약속했고, 그 가나안의 언약 속에 살 때 그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고, 그와 그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(창12:1-3).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, 그 약속의 축복을 영원한 유산으로 누릴 자가 되었다고 했다(갈3:29).

**이 언약을 확실히 깨닫고 누린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다.** 문제는 그 다음 세대들이었다. 실패와 고통이 반복된다. 사사기는 그 이유를 밝히면서 우리는 속지 마라는 것이다.

1.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세가지 이유이다.

1)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(삿6:1)

① **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실패에 대해 오래 기다리신다.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이유다(롬8:34)**  
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깨닫고 올바르게 기도하도록 기회를 주신다. 그것이 광야 40년을 비롯한 성경의 역사이다.

**이것을 못 깨닫고 계속 실패의 길을 가면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다.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(히12:8)**

② **악의 내용이 무엇인가? 가장 큰 것이 우상 숭배이다(출20:4-5).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뭐가?**  
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것이다.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상이 있다.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은혜가 담긴 복음보다는 내 생각과 기준을 앞세우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된다(창3:5, 약4:11-12) 영적인 축복은 다 놓치고 육의 것,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고 사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된다(세상의 성공, 돈)  
**그것들 때문에 낙심, 절망, 하나님께 대한 원망에도 빠지고, 세상적인 유혹과 즐거움에 빠져 타락도 한다.**

③ **그 결과로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, 사람에게 악을 행하기도 한다(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것)**  
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, 누구도 판단하고 억신여기지 말라 했다(롬14:10)

2) 두 번째 이유가 본문이다.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 축복을 깬 것이다.

① **사사 입다가 므낫세 지파 중에 길르앗 사람들만 데리고 암몬 족속을 이긴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왔다.**  
여기에 시기가 생긴 것이다. “왜 우리를 불러 같이 싸울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”는 것이다(1절)  
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, 축하하고, 기뻐해 주어야 당연한 것이다.

② **경쟁의식, 우월의식(교만)에 빠진 것이다. 사실은 오랫동안 만들어진 상처에서 나온 것이다.**  
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본래 요셉의 두 아들이다.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쓰임받았다. 그 지파를 통해 여호수아가 같은 지도자가 나왔고, 그 동생 지파의 그늘 아래서 므낫세는 작은 지파가 되었다.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기드온이나 입다 같은 인물이 나오니 이것이 시기가 된 것이다.

③ **이것이 쓴 뿌리가 되고, 사단의 통로가 된다. 심지어는 과거를 들추어내며 멸시까지 했다(4절)**  
여기서 치명적 전쟁이 일어나고, 에브라임 사람 42,000명이 죽는다.

3) 세 번째 이유는 사사기의 결론에 나온다.

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으니 각자 자기 소견대로(생각, 기준, 주장)대로 행한 결과라고 했다(삿21:25).

2.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?

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쓴 뿌리들을 하나씩, 평생의 삶을 통해 새 뿌리로 바꾸어야 한다(엡4:22-24)

1) **하나님의 절대 계획, 절대 사랑, 절대 은혜의 축복의 언약을 내 안에 각인시키라.**

① **복음의 말씀을 지속해 듣고 암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도 나온다(롬10:17)**  
그 분의 절대 계획과 사랑과 은혜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,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참된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한다  
**다른 사람과의 경쟁 의식, 성취감에서 오는 자존감이 아니다. 내 모습 그대로 행복하고 감사해야 한다(사43:1, 4)**

② **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.**

그 축복을 위해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이다(행2:42, 살전2:13)  
묵상은 말씀을 내게 적용을 하는 시간이다. 계속 문제와 갈등이 오나 말씀으로 답을 내고, 방향을 찾아야 한다.  
중요한 일을 할 때는 더욱 그렇다. 내가 말씀 속에 있을 때 정확히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다(요15:7)

2) **이 복음의 언약이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리도록 도전하라**

식물도 추운 겨울에 깊은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복음을 깊이 뿌리내리는 기회가 된다.

① **나만의 기도 시간을 만들고, 그 축복을 누려야 한다.**

구원받은 자가 최고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다(요16:24)  
**당장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, 복음에 뿌리를 내리는 만큼 평생의 삶이 응답이 되는 것이다(엡3:20).**

② **기도를 통해 내 인생(마음, 생각, 계획)을 성령이 다스리도록 기회를 드리고, 그 분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한다.**  
이 힘이 없으면 결국 내 기준, 내 수준을 못 벗어난다.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 기준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.  
성경도 내가 필요한대로 적용한다.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20세기 교회를 무너뜨린 자유주의 신학이다.

3) **이 복음의 언약이 내 인생의 체질이 되도록 계속 훈련하라.**

① **분명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이 맞다면 살전5:16-18이 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.**  
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, 문제를 보고, 세상을 보는 눈을 훈련하는 것이다.

② **작은 습관을 반복할 때 체질이 만들어지고,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소중히 쓰실 수 밖에 없는 인생을 만든다.**  
성공도 습관에서 온다(“습관의 힘”). 실패를 반복하는 것도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체질이 만들어진 것이다.  
**분명한 것은 그것이 내 후대에게도 전달되고,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과 미래를 만드는 비밀 중에 하나다.**

결론-실패의 통로만 차단해도 된다.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작품이 되기를 축복한다.